

한국전파진흥원부설 IT인재개발교육원과 업무협약 체결



는 교육원 홈페이지(www.aitt.or.kr)에서 볼 수 있다.

협회(회장 백중진)는 10월 9일, 협회에서 한국전파진흥원(원장 최수만)부설 IT인재개발교육원(이하 교육원)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중·소 벤처 재직 근로자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훈련 및 위탁교육 등의 제반사항에 대하여 상호 긴밀한 협력을 도모하게 된다.

앞으로 협회와 교육원은 ▲협회 회원사가 한국전파진흥원 부설 IT인재개발교육원의 교육프로그램을 이용 시, 30%의 할인혜택 및 ▲양 기관 간 교육 콘텐츠(교재, 교육프로그램), 교육시설 및 실습장비, 기자재 등을 공동 활용 ▲교육과정의 홍보 및 수강생 확보를 위하여 홈페이지에 양 기관의 교육내용을 협력교육과정으로 게재 ▲산업체가 요구하는 기술수요 및 교육과정의 공동조사에 협조하는 등 실무적인 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전파진흥원(원장 최수만)부설 IT인재개발교육원은 1970년대부터 컴퓨터 교육을 시작, 기업이 원하는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현장형 인재를 키워내는 우리나라 정보통신교육의 산실로 전통을 쌓아왔다. 현재 서울본원을 비롯 전국 20개 분원에서 IT산업인력에 대한 다양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과정 및 자세한 정보

벤처윤리경영교육확대를 위해 벤처확인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협회는 10월 11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기업의 투명경영, 윤리경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 확산에 부응, 벤처기업확인기관인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벤처캐피탈협회와 공동으로 윤리경영교육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국내 최초로 '벤처윤리경영인증제도'를 도입, 시행함으로써 벤처기업의 투명윤리경영을 통한 벤처산업에 대한 인식제고와 벤처기업의 기업경쟁력제고를 위해 노력하고있는 협회는 다양한 방법으로 벤처기업의 윤리경영 확산을 추진하면서 이번 4자간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벤처투명윤리경영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성사된 이번 벤처기업 윤리경영교육 업무협약을 통해 4개 기관은 ▲벤처확인제도와 관련한 설명회, 심포지엄, 세미나 등의 개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지원사업을 공동으로 수행 ▲협회에서 실시하는 윤리경영교육을 통한 '윤리경영이수기업'에 대한 협약기관과의 협조를 시작으로 앞으로 적극적으로 벤처윤리경영교육확대를 모색할 예정이다.

한편 협회에서 실시하는 벤처윤리경영교육은 10월 30일부터 연말까지 총 4회에 걸쳐 시행된다. 교육비는 무료이며, 교육인원은 회차별 60명으로 진행된다. 벤처윤리경영교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협회 홈페이지(www.kova.or.kr)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벤처최고경영자과정 총동문회 정기모임 가져



협회에서 주관하고 있는 벤처최고경영자과정 교육생들은 첫 번째 정기모임을 지난 10월 11일 가졌다. 9월 10일 벤처최고경영자과정 총동문회 창립식에 이어 열린 이날 총동문회 행사에는 3기 수료자인 김에이지 김영욱 대표의 우수경영사례 발표에 이어 현재 교육이 진행중인 4기 교육생들과 1기~3기 수료 동문들 40여명이 선후배기수들과의 화합을 다졌다. 또한 벤처기업인들간 사업적 교류와 정보 공유 등 최고경영자과정 총동문회를 통한 향후 발전방향을 함께 모색해 보는 뜻 깊은 행사로 진행됐다.

협회, 벤처산업연구원 등과 '벤처정책토론회' 개최

- 벤특법 연장에 따른 제2기 벤처정책 방향 모색



협회는 지난 10월 17일 오후 4시 30분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에서 벤처산업연구원, 벤처리더스클럽, 벤처캐피탈협회와 공동으로 '벤처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특별조치법 연장에 따른 '벤처생태계, 향후 10년의 발전방향과 정책과제'라는 주제로 벤처산업연구원 한정화 원장의 기조발제 및 벤처업계의 다양한 패널들이 참가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패널로는 고정석 벤처캐피탈협회장, 김주훈 KDI 박사, 박상일 파크시스템스 대표, 송중호 중기청 본부장, 이남형 기술보증기금 이사, 전하진 벤처기업협회 부회장 등이 참여하였으며 사회는 유관희 중소기업학회장이 맡았다.

벤처산업연구원 한 원장은 이날 기조발제에서 ▲벤처경영성과 향상 및 투자수익률 증대 ▲우수·전문인력의 창업도전 및 성공가능성 제고 ▲벤처생태계 인프라 업그레이드 및 효과성 제고 ▲벤처 자금조달 및 투자 확대 ▲벤처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유관 정책·부처 연계 강화 등의 제 2기 벤처정책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한편 패널로 참가한 벤처캐피탈협회 고정석 회장은 공공성이 담보되는 모태펀드 출자조합의 경우 자산에 대한 보호장치는 유지하되, 민간주도로 결성된 조합은 M&A, Buyout 등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자는 의견 및 투자자금의 유용성을 높이는 동시에 지속적인 투자가 가능하도록 정부주도하에 공신력 있는 벤처기구에 온라인상의 상설 인수합병 시장을 개설하여 벤처기업M&A의 활성화를 주장하였다.

이어 파크시스템스 박상일 대표는 벤처생태계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점인 Super A급 인재의 참여가 저조해 지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이는 기업이 정신의 쇠퇴를 의미하며 거세지는 중국, 일본 등 인접국가와의 경쟁에서도 열세에 처하게 됨을 지적하였다.

또한 기술보증기금 이남형 이사는 벤처기업의 성장촉진을 위한 방안으로 벤처기업의 기업 규모성장에 따른 맞춤형 지원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벤처지원정책의 무게중심이 창업에 지나치게 편중되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기술상업화 촉진을 위한 방안으로 기술수요자 중심의 기술개발 체계화 및 기술경영자의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활성화, 효과적인 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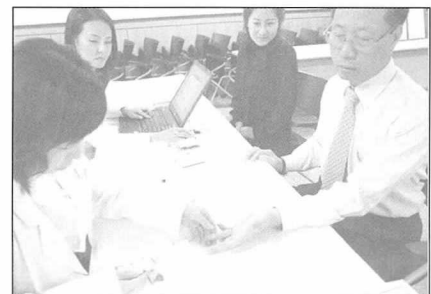
금융지원을 통한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모색했다.

한편 한 원장은 본 정책토론회를 하게 된 배경에 대해 "향후 10년은 한국의 벤처생태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벤처투자의 수익률이 높아져서 투자, 성장, 회수의 선순환 사이클이 역동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 이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하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SVI입주기업 헬스피아, 혈당측정 행사

협회 부설 서울벤처인큐베이터 SVI 입주업체인 헬스피아(www.healthpia.com 대표 이경수)는 지난 10월 17일 서울벤처인큐베이터 입주사 직원을 대상으로 무료 혈당 측정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협회 전대열 부회장을 비롯하여 80여명의 직원들이 참여, 혈당측정을 통해 건강을 확인했다.

앞으로 헬스피아는 헬스피아의 대표 제품인 당뇨폰을 통해 혈당측정 및 모바일 당뇨 서비스를 제공하는 헬스피아에서는 이번 행사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입주사 직원들의 혈당을 관리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혈당체크뿐만 아니라 당뇨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전시하여 협회와 입주사 직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협회, 벤처코리아기간캐나다증권시장(TSX Venture Exchange)상장 설명회 개최 - 캐나다 증권거래소(TSX:Toronto Stock Exchange)와 공동주최



협회는 10월 18일 캐나다 증권거래소(TSX:Toronto Stock Exchange)와 공동주최로 '캐나다 증권시장(TSX Venture Exchange) 상장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코엑스 아셈홀에서 열린 이번 설명회는 사전신청한 30여 명의 벤처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캐나다 TSX Venture Exchange 시장에 관한 개요 설명을 중심으로, 상장에 도움을 줄 현지 법률회사 Venture Law Corporation의 발표자 Alixe Cormick 및 Blackmont Securities Inc.의 Randy Peterson, Canaccord Capital Corp.의 Jackie Koh가 참석하여 유용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였다.

지난호 <접속 벤처인월드>에서도 소개된바 있는 캐나다 증권시장은 약 150년 역사를 가진 TSX와 100년 역사의 TSX Venture Exchange(우리나라의 코스닥시장에 해당)를 합쳐서 일컫는다. 상장회사 숫자에서 세계2위(북미 1위), 시장 내 자금조달 규모면에서 세계5위, 시가총액면에서는 약 2조 달러로 8위(북미 3위)의 시장으로 특히 상장되어 있는 기업수가 3,842개(06년 기준)로 나스닥의 3,133개 보다 많다. 이는 세계 어느 시장보다도 중소 벤처기업들이 상장하기가 쉽고 또한 자금조달 성공율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TSX는 이미 캐나다시장이라기보다는 글로벌 시장으로 인식되고 있다. 미국과 유럽, 중국에서 상장하려는 회사들이 문을 노크함과 아울러 벤처기업 M&A 및 전략적 제휴를 위한 글로벌 소핑시장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TSX는 세계 자원개발 관련 상장회사의 60% 이상이 이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최대의 자원개발 자본시장이기도 하다. 또한 TSX-V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과 낮은 진입장벽으로 중소 벤처기업들 뿐 아니라 국내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중견 벤처기업들에게도 활용할 수 있는 과실들이 무궁무진한 매력적인 자본시장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TSX 상장에 관한 본 발표에 앞서 메리츠 증권에서 나스닥을 비롯한 여러 해외증권시장을 소개하고 각각의 특징과 국내 기업의 상장현황을 설명하여 참여자들의 해외증권시장에 관한 이해를 도왔다.

서울벤처인큐베이터 연합 워크숍 개최

협회부설 서울벤처인큐베이터(SVI)는 지난 10월 19일부터 20일까지 양일간 양평 미리내 캠프에서 SM연합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은 "Small Change, Deep Impact"란 슬로건아래 입주기업 임직원 70여명이 참가하여 시종일관 열기 가득한 화합의 시간을 보냈다.

워크숍 프로그램 중 '챌린지코스' 야외활동은 암벽타기, 가벽넘기 등 다양한 코스를 통해 팀원 간 단합된 팀워크와 깊은 신뢰를 쌓을 수 있게 해 가장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각 회사별로 토의 시간을 가진 후 열린 레크레이션과 장기 자랑에서는 SM라는 한 공간에 살면서도 미처 알지 못했던 한명 한명의 끼와 열정을 볼수 있었던 흥겨운 시간이었다.

답답한 도심을 떠나 탁 트인 공간에서 심신을 새롭게 하고 각 기업별 비전을 나누는 자리가 된 이번 워크숍은 참가자 모두에게 남은 2007년을 생산적으로 보내고 다가오는 2008년의 각오를 다지는 기회가 되었다.

한편 SM 지원실에서는 지난 6월에 개최된 체육대회 및 달마다 진행된 CEO클럽, 각종 특강 등 입주사 모두가 만족하고 우량벤처로의 성장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